

발행처: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발행인: 김용일 전화: 02-6977-6503 팩스: 0505-085-6503

※ “올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올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1992년 8월 27일 대우증권 노동조합 소식지 ‘대동대우’ 中 발췌)

개인별 약정 목표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자아실현 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에 조금 더 접근해가면 생존과 생활의 근거인 경제적 안정이 더욱 절실한 가치로써 인식되고 있다.

.....(중략)

일각에서는 매매사과의 주된 원인은 약정할당제가 아닌 건전한 매매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있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직원들이 비정상적 영업을 한다면 그 이유는 ‘본인의 뜻’이 아닌 정상적 영업방법으로는 회사가 배정한 점유율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부득이한 편법이다.

(1992년 9월 29일 대우증권 노동조합 소식지 ‘대동대우’ 中 발췌)

증권감독원, 주식약정 할당금지

우리 노동조합의 건전매매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감독원이 26일 각 증권사에 개인별, 점포별 주식 약정 목표치를 할당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고....(중략)

(2007년 7월 10일 대우증권 노동조합 소식지 ‘노조속보’ 中 발췌)

“약정강요”로 대변되는 “영업직원찌기”

노동조합은 아직도 구태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조직관리가 아닌 개인의 자리보존을 위한 부속품으로만 여기는 본부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권리인 휴가마저도 지점장의 눈치를 보며 못가는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한 두 푼의 성과급을 받는 이슈보다 직원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라는 어느 직원의 눈물겨운 호소가 바로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다.

위 내용은 무려 10~27년 전 당시 대우증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회사 경영자 및 증권감독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던 일들이 놀랍게도 2019년 미래에셋대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WM에서는 특정ETF를 직원들에게 할당하여 매매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매수 물량 중 90% 가량이 당사 판매금액이었습니다.

7월이 되자 몇 개의 허브에서 해외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매일(매주) 약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간 참여율이 저조한 지점은 허브장이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PT를 시키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들은 그 압박을 탈출하고자 개인자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니즈와 상관없는 영업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몇몇 허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외주식 일일 약정 강요 및 특정 ETF 할당판매 등이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허브장의 실명공개 및 불완전판매 강요,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있어 법적인 검토 후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30년 전 방법 말고는 도저히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는 자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